

KBS2 새 대하드라마

文武

KBS의 새 대하드라마를 오매불망 기다려 온 시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왔다. <태조 왕건>,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그리고 <고려거란전쟁>까지 44년 동안 34편에 이르는 주옥같은 작품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온 대하드라마의 명가 KBS가 2026년 새 대하드라마 <문무(文武)>를 야심 차게 선보인다. 약소국 신라가 강대국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당나라까지 넘어선 끝에 마침내 삼한을 하나로 묶은 위대한 통합의 서사를 그린다.

충실한 고증으로 역사 재현...명품 배우 총출동

<99억의 여자>를 비롯해 <화랑>, <장영실>, <징비록> 등을 연출한 김영조 PD와 2021년 KBS 극본 공모 미니시리즈 부문에 당선된 김리현 작가가 손 잡고 4개국이사황을 걸고 각축했던 삼한 통일의 역사를 충실한 고증을 통해 입체적으로 그려낼 예정.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배우 이현욱, 장혁, 김강우, 박성웅, 정웅인 그리고 조성하까지 내로라하는 얼굴들이 대거 출연을 확정해 예비 시청자들의 뜨거운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 관련 기사 2편

몽골에서 전투씬 촬영...첨단 기술로 '몰입감' 극대화

당나라를 물리치는 결정적 전환점인 '매소성 전투'를 비롯해 시청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대규모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촬영은 몽골의 드넓은 초원에서 진행된다. 여기에 최첨단 시각 특수효과(VFX: Visual Effects)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과 디테일을 두루 갖춘 박진감 넘치는 전투 장면으로 시청자에게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수신료 통합징수 덕분에 대하사극 제작 실현"

제작진과 출연진은 첫 촬영에 앞서 11월 18일(화) 제작보고회에서 최고의 대하드라마로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장범 KBS 사장은 "대하사극은 저희 KBS가 시청자 여러분께 서비스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책무 중 하나"라며, "KBS가 대하사극을 만들 수 있게 된 건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지난 4월에 통과되고, 11월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 덕분에"이라고 강조했다. KBS 2TV 새 대하드라마 <문무>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된다.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KBS 공채 51기 신입사원 입사식이 12월 1일(월)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열렸다. 박장범 KBS 사장은 신입사원 70명 전원에게 직접 임명장과 사원증을 건네며 KBS의 새 식구가 된 것을 축하했다.

최세현 시사교양PD는 소감을 통해 "선배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저희가 한 단계 더 성장해서 미래의 KBS를 짊어질 수 있는 유능한 KBS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지 취재기자는 "언론인이라는 꿈을



KBS에서 펼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오늘 이 마음 잊지 않고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뢰받는 KBS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장범 KBS 사장은 환영사에서 "여러분이 가진 열정, 창의적인 에너지, 기성세대와는 다른 참신한 시선으로 KBS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비춰줄 소중한 역량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입사원 명단 3편

역대급 초호화 캐스팅으로 기대감 폭발

KBS 2TV 새 대하드라마 <문무> 연출을 맡은 김영조 PD가 작품에 임하면서 세운 전략이 있다. 다름 아닌 '배우'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배우들을 다 캐스팅했고, 국민 여러분께 서비스한다는 건 중요한 인물들을 최고의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11월 18일(화)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이현욱, 장혁, 김강우, 정웅인, 조성하 배우의 출사표를 들어본다.



이현욱 | 김법민

김법민이란 인물은 자존심과 배짱도 두둑하지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라면 수치스러움도 이겨내는 냉철한 승부사 같은 캐릭터입니다. 실존했던 인물 속에 빠져들어 연기하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는 좋은 작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우 | 김춘추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 대본이 재미있어야겠죠. 저희가 촬영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대본을 봤을 때 무협지 보는 느낌이었어요. 캐릭터들이 정말 생동감 있게 살아 있는 무협지를 보는 느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멋진 영웅호걸들이 있었구나. 김춘추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조성하 | 고건무

사건과 인물, 상황들을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밀도를 높이느냐, 이런 걸 계속 탐구해서 더 쉽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할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희 배우들의 일이 아닌가. 그것으로 좀 더 높은 품격을 만드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문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정웅인 | 김진주

김진주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신라 진골 귀족 출신 장군이고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망하신 이후에 문무를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그러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각자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인물로 표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장혁 |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 역사 속 인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연개소문과 조금은 다른 캐릭터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깊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끝날 때까지 집중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연개소문은 드러나지 않은 미남이었습니다.

다큐인사이드 한반도 생명탐사 생존자들



수만 년 전, 이 땅엔 사향노루가 거닐고 붉은 박쥐가 날았다. 맑은 바다에선 상괭이가 유명했다. 그러나 인간이 번성하면서 이들은 빠르게 사라졌고, 멸종위기에 놓였다. KBS가 한반도의 시간을 품고 묵묵히 자신의 생을 이어가고 있는 멸종위기종들의 놀라운 생명력을 조명한다.

다큐 인사이드 <한반도 생명 탐사: 생존자들>은 12월 4일(목)부터 3주 동안 목요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1부는 <사향노루 3대(三代)>. 사향노루는 멸종됐다고 알려지다 2020년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우연히 10여 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울무에 한쪽 발을 잃은 암컷 사향노루는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번식에 성공해 새끼를 낳았다. KBS는 사향노루증식복원센터와 협업, 무인센서카메라 200여 대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멸

종 문턱에 서있는 사향노루 가족의 생존기를 밀도 높게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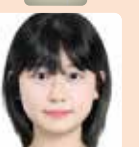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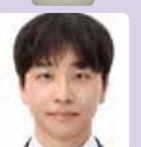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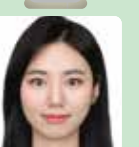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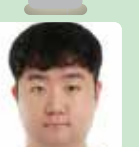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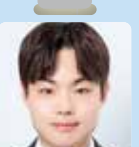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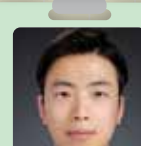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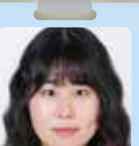
2부 <폐광 박쥐, 철수(撤收)의 지혜>는 사람이 떠난 폐광에 터를 잡은 박쥐의 신비한 생태를 다룬다. 멸종위기 1급인 붉은 박쥐와 관박쥐 등은 폐광과 숲, 호수를 오가며 새로운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죽어가던 생태계에 숨을 불어넣었다. KBS 박성주, 김승민 감독이 초고속 촬영한 관박쥐의 사냥 장면과 초음파로 어미가 새끼를 구분해 내는 모습 등은 생명이 주는 감동을 생생히 전한다. 제작진은 철거된 마을과 폐교 등 '새로운' 빈 공간에 깃든 동·식물의 모습을 통해 인구 감소 시대 생태와 어우러지는 인간의 지혜로운 철수를 모색한다.

3부 <상괭이, 바다의 숨> 편은 경남 사천 앞바다에 서식하는 토종 고래 상괭이의 6개월 육아일기이다. 상괭이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있다. 제작진은 수중 드론, 초고속 카메라 촬영 등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어미 상괭이'의 수중 생태를 밀착 관찰했다. 혼획으로 인한 폐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한 연구진의 노력도 살펴본다.

▶ 12월 4일(목)~매주 목요일 밤 10시 KBS1

New Face in KBS!

KBS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윤이진 시사교양PD(전국권)	 이지원 시사교양PD(전국권)	 최세현 시사교양PD(전국권)	 김희제 시사교양PD(전국권)	 강다현 시사교양PD(전국권)	 조명지 시사교양PD(영남권)	 신혜림 시사교양PD(호남제주권)	 양혁규 시사교양PD(충청강원권)
 박준섭 시사교양PD(충청강원권)	 신유진 라디오PD	 김란 라디오PD	 정지원 예능PD	 류소정 드라마PD	 강은빈 스포츠PD	 전동훈 취재기자(전국권)	 김혜진 취재기자(전국권)
 심새하 취재기자(전국권)	 이혜지 취재기자(전국권)	 박효빈 취재기자(전국권)	 곽우진 취재기자(전국권)	 김서영 취재기자(영남권)	 문그린 취재기자(영남권)	 김정현 취재기자(영남권)	 현경주 취재기자(호남제주권)
 박세은 취재기자(호남제주권)	 박은영 취재기자(충청강원권)	 허중현 취재기자(충청강원권)	 정다연 취재기자(충청강원권)	 김동언 촬영기자(전국권)	 주현성 촬영기자(전국권)	 류현수 촬영기자(전국권)	 박상현 촬영기자(영남권)
 문영식 촬영기자(호남제주권)	 김진식 촬영기자(충청강원권)	 한상진 영상제작(전국권)	 배소영 영상제작(전국권)	 김동준 영상제작(전국권)	 김민규 영상제작(영남권)	 홍찬영 영상제작(호남제주권)	 박정호 영상제작(충청강원권)
 이상철 아나운서(전국권)	 박효진 아나운서(전국권)	 심수현 아나운서(영남권)	 류호성 방송기술(전국권)	 이정민 방송기술(전국권)	 김창재 방송기술(전국권)	 현지현 방송기술(전국권)	 강혜린 방송기술(전국권)
 심현식 방송기술(전국권)	 이혁제 방송기술(전국권)	 김보민 방송기술(전국권)	 박재훈 방송기술(영남권)	 한동주 방송기술(영남권)	 차주원 방송기술(영남권)	 김성진 방송기술(호남제주권)	 정락원 방송기술(호남제주권)
 장현균 방송기술(호남제주권)	 김정현 방송기술(호남제주권)	 정현식 방송기술(충청강원권)	 이은주 방송기술(충청강원권)	 김세중 방송기술(충청강원권)	 정호진 방송경영(전국권)	 조연주 방송경영(전국권)	 김민지 방송경영(전국권)
 신우소 방송경영(영남권)	 유시창 방송경영(호남제주권)	 김명주 방송경영(충청강원권)	 이민서 IT	 손현경 IT	 박효진 콘텐츠		

전설의 다큐 역사스페셜 귀환

당신은 고구려 살수대첩의 한가운데 서있다. 날아드는 창날을 피해야 한다. 당신은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을 함께 보며 왜군을 물리칠 전략을 짜고 있다. 보는 역사가 아닌 '경험하는' 역사! KBS 전설의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이 3년 10개월 만에 부활한다. 새로 선보이는 <역사스페셜-시간여행자>는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을 활용해 기록과 상상 속에 존재 하던 역사적 순간과 인물을 생생하게 구현했다. 첫 방송은 12월 7일(일) 밤 9시 30분 KBS 1TV.

한국사를 바꾼 운명의 전쟁 속으로

시간 여행의 문은 전쟁터에서 먼저 열린다. 고구려가 대륙 제국 수나라의 거대한 힘을 지략으로 꺾고 전설적인 승전 서사를 남긴 살수대첩, 지형을 활용한 특수 작전과 숨겨둔 최종 병기로 거란의 대군을 꺾었던 고려 귀주대첩, 임금이 수도를 버릴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전세를 단번에 뒤집은 조선의 한산대첩.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적으로 이겨낸 기적의 대첩 3부작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당시 한반도의 전쟁과 함께 급변하던 동아시아 정세를 살피며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전율을 느낄 수 있다.

지적 호기심을 한껏 자극하는 고대사 미스터리도 찾아온다. 유라시아 대

륙의 1,300년 전 고대 도시, 서울에서 8,000km 떨어진 이곳 궁전 벽화에 등장한 한반도 사신. 일본의 폼페이로 불리는 군마현 화산재 속에서 발견된 백제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국경을 넘어 교류했던 조상들의 발걸음은 세계사가 곧 우리의 역사임을 자각하게 한다. 제작진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막강함은 역사 속 응축된 한국인의 역동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확인시켜 줄 수많은 역사를 '시간 여행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배우 지승현, 시간 여행자로 변신

시청자를 안내할 시간 여행자는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장군 역으로 열연한 배우 지승현이다. 그는 단순히 역사를 설명하고 해석하지 않는다. 전장에서 화살을 피하며 실감 나는 전투를 치르고, 고대 도시를 탐험하며 역사의 진실을 찾아 나선다. 지승현은 "역사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과거로 뛰어 들어가 현장을 목격하고 그 의미를 전하는 시간 여행자, 여러분의 여행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새롭게 시작되는 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역사스페셜-시간여행자> 12월 7일(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KBS1**

10개의 사랑

러브:트랙

KBS가 당신의 시린 마음을 달래줄 풍성한 '러브 보따리'를 준비했다. KBS 2TV 단막 프로젝트 <러브: 트랙>은 다채로운 10가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 종합 선물 세트이다. 12월 14일(일)부터 28일(일)까지 매주 일요일 밤 10시 50분, 수요일 밤 9시 50분에 각각 2편씩 공개된다.



10편의 작품은 서로 다른 감정과 서사를 하나의 플레이리스트처럼 유기적으로 이어간다. 연애와 이별, 짝사랑, 가족애는 물론 노년과 비혼, 다양한 정체성의 사랑까지 단편 특유의 유연한 형식으로 펼쳐낼 예정이다. 11월 21일 공개된 티저 영상은 달콤한 미소의 웅성우와 한지현, 현실 모자 케미를 보여주는 김선영과 김단, AI에 사랑을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는 풋풋한 모습의 김향기와 진호은 등 여러 배우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석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작진은 "짧은 시간에 더 깊고 선명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단막극만의 힘을 보여드릴 예정"이라며 "10가지 사랑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결로 시청자들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12월 14일(일) ~ 일요일 밤 10시 50분, 수요일 밤 9시 50분 **KBS2**



글로벌 K팝 축제

2025 GLOBAL FESTIVAL IN JAPAN

KBS <2025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인 재팬>이 12월 13일(토)과 14일(일) 이틀 동안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골든 로드(Golden Road)'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공연은 한류 열풍의 중심지였던 일본을 넘어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팝의 발자취를 담아낸다.

닛산 스타디움에 입성한 최초의 K팝 가수 유노윤호와 '빌보드200' 1위에 오른 그룹 스트레이 키즈, 다채로운 글로벌 음악 페스티벌에서 공연형 아이돌임을 입증한 그룹 아이브를 비롯해 에이티즈, ITZY,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즈나 등 최정상 아티스트 26팀의 역대급 무대가 예고돼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특별 공연으로 마련한 '골든 스테이지'에서는 그룹 라이즈가 Hug(동방신기), 하츠투하츠가 소원을 말해봐(소녀시대), 코르티스가 MIC Drop(BTS), 이즈나가 Pretty Girl(카라) 등 K팝 대표곡의 무대를 재현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연말을 화려하게 수놓을 <2025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인 재팬>은 12월 30일(화) 저녁 8시 30분 KBS 2TV에서 확인할 수 있다.